

한국노인과 중국노인의 라이프스타일 비교

이 영 숙*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김 용 숙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劉 國 聯 (中國 遼寧丹東高等專科學校 副教授)

노령화사회를 맞아 노인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구나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정생활의 내용과 양식을 여러 모양으로 변화시켜 노인 세대에게는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더 많은 적응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적응을 위해 노인 복지나 노인 산업 등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준비는 노인의 생활방식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가족적 배경이 비슷한 중국을 선정하여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비교함으로써 한국노인과 중국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 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료는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999년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전북지방과 중국의 랴오닝성 [遼寧省] 에 거주하는 노인 950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평균, 요인분석, 군집분석, ANOVA, Scheffé test 및 χ^2 -test로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은 보수안정형, 침체무기력형, 현실긍정형, 현대진보형 등 네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보수안정형은 가장 많은 노인이 취하는 라이프스타일인 반면 현대진보형 노인은 가장 적었다.

둘째, 한국노인은 침체무기력형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현대진보형, 보수안정형 순이었으며 현실긍정형이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반면 중국노인은 보수안정형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현실긍정형, 침체무기력형 순이었으며 현대진보형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한국노인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때 중국노인이 한국노인에 비해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노인도 보수주의적 성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보수안정형을 취하는 중국노인에 비하면 그 비율이 적으며, 대신 서구의 영향에 기인한 적응의 어려움의 결과로 생긴 침체무기력형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노인이 중국노인에 비해 침체무기력형이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활기차고 적극적인 생활양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공통적으로 차이를 가져온 변인은 학력, 생활정도, 직업유무, 배우자의 유무이며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은 성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노인의 경우 연령, 거주지의 크기, 건강상태,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중국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한국노인과 중국노인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노인 연구와 노인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옥 선 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성 미 애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허 정 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 1단계 탐색조사로 빈곤 여성가장 4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직업생활 및 복지정책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를 수행한 후, 제 2단계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3단계 본조사는 조사 당시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첫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빈곤 여성가장 35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배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0년 2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수행되었다.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 빈곤 여성가장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 및 교육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낙관하지만, 발달주기 및 상황과 관련하여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둘째, 빈곤 여성가장은 보통 수준 이상의 생활만족도를 보여,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가치롭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생활 평가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측면도 있다. 셋째, 전반적인 소외감 수준은 높지 않으나, 소외감 하위영역 중 특히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통 수준 이상의 무력감을 보인다.
2. 가족생활 측면에서 보면 가족 내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은 일반 가족의 경우와 비교할 때 큰 문제가 없다. 한편, 빈곤 여성가장에게 친정 가족 및 자녀가 중요한 지원망으로 작용하며, 특히 자녀의 존재는 삶의 목표가 된다. 그러나 자녀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 부담을 가진다.
3. 빈곤 여성가장의 직업생활은 자신의 직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며, 직업역할에서 보통 수준 이상의 보상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직업의 불안정성으로, 장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보인다. 또한 경제생활의 측면에서 빈곤 여성가장은 IMF금융관리 기간이었던 지난 1년간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에서 IMF의 위기상황이 끝났다고 보는 현재를 빈부 간 격차가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 과정으로 지각하고 있다.
4. 빈곤 여성가장은 전반적으로 복지제도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제도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생활대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IMF 관리체제 이후 전반적인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관련된다.

이상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복지정책의 보완 및 확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빈곤 여성가장의 직업활동 및 일상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확충이 요구된다. 특히 안정적 취업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로는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자녀는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삶의 목표설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서 무력감을 해소하고 양육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령기 자녀의 공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지원, 방과후 시설의 보완 및 영유아기 자녀의 보육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로 자녀와 관련되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나, 자녀가 중요한 지원망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므로 모자녀관계 강화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넷째로 현시기를 경제적 불평등 과정으로 지각하는 만큼, 사회적인 소득재분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산 풍속의 문화간, 세대간 차이 : 한국, 홍콩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 안 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민 하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시간강사)

이 연구는 한국, 홍콩, 미국의 출산 풍속 비교를 통해 출산 풍속의 문화적 독특성과 세대간 전이를 파악하고자, 2세에서 2세 반 까지의 첫 자녀를 둔 한국(모/조모 각 118명), 홍콩(모/조모 각 126명), 미국(모/조모 각 78명)의 모와 그들의 친정 또는 시어머니를 연구대상(총 모/조모 각 322명)으로, 질 문지법을 이용하여 출산 전과 출산 시 풍속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 홍콩, 미국의 출산 풍속은 각국의 아동학 관련 교수 및 출산 풍속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출산 풍속에 관한 각 문항의 질문은 Yes/ No응답의 폐쇄형이나 3점 리커트 형으로 구성하였다. 출산 풍속은 출산 전 풍속과 출산 시 풍속으로 구분하였으며, 출산 전 풍속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태도, 임신하기 위한 노력, 임신 중 섭생, 태교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출산 시 풍속은 임부 및 가족의 출산 준비, 출산 장소, 출산시 남편의 위치로 하위 영역을 구성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Win SPSS의 Crosstabs, F검증, Scheffé 추후 검증, t검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태도(임신을 관장하는 신적인 존재 믿음, 첫 아이 성별에 대한 기대), 임신 하기 위한 노력(보약복용, 임신에 도움되는 음식 가려먹음), 임신 중 건강 관리 및 태교 등과 관련한 출산 전 풍속과 임부 및 가족의 출산 준비(세욕함, 상가 및 장례식 안감), 출산 장소, 출산시 남편의 위치 등과 관련한 출산 시 풍속은 한국, 홍콩, 미국의 세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한국, 홍콩 미국의 경우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태도(임신을 관장하는 신적인 존재 믿음, 첫 아이 성별에 대한 기대), 임신 하기 위한 노력(보약복용, 임신에 도움되는 음식 가려먹음, 배란일 부부관계, 부적소지), 임신 중 건강 관리 및 태교 등과 관련한 출산 전 풍속과 임부 및 가족의 출산 준비(세욕함, 상가 및 장례식 안감), 출산 장소, 출산시 남편의 위치 등과 관련한 출산 시 풍속에서 각 문화내 모-조모 세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결과, 임신과 출산을 관장하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남아 출산에 대한 기대, 및 태교는 한국, 홍콩,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홍콩과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 더욱 보편화된 문화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출산이 가까워짐에 따라 임부나 가족이 장례식에 가지 않은 행동은 홍콩과 미국에서 발달하지 않은 한국적 출산 풍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하기 위해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하는 것, 임신 중 섭생, 병원 분만, 출산 시 남편의 병원 대기는 한국, 홍콩, 미국의 모(母) 세대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출산 풍속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아 출산의 기대, 출산 준비를 위한 세욕은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한국과 홍콩에서 모/ 조모 세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관습이라 할 수 있다. 출산 전과 출산 시 풍속의 세대간 변화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한국은 미국, 홍콩에 비해 역동적이라 할 수 있으며 미국은 한국, 홍콩에 비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유 안 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민 하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박사후 과정)

권 기 남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사회적으로 소외된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규명하고자,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을 개인 관련 변인, 입소 관련 변인, 시설 관련 변인, 자아정체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했으며, 연구대상은 서울시 아동복지 시설 연합회 소속의 서울 소재 보육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121명), 중(135명), 고등학교(85명) 아동 및 청소년 3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 척도를 이용해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각각 측정했으며, 자아정체감 척도, 개인 관련(성별, 학년, 부모접촉 여부, 입소 전 부모관계), 입소 관련(입소 원인, 입소 기간), 시설 관련(시설의 심리적 환경) 변인 척도를 이용했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윈도우형 SPSS의 t검증,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학년, 부모접촉여부, 입소 전 부모와의 관계, 시설의 심리적 환경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은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모와 접촉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입소 전 부모로부터 지지적인 양육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높이 지각하는 경우가 낮게 지각하는 경우보다 높았다.

둘째,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우울 성향/ 학교 적응)은 개인 관련 관련, 입소 관련 및 시설 관련 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주효과가 있었으며 자아정체감에 따라 주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 관련, 입소 관련 및 시설 관련 변인과 자아정체감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 성향의 경우 입소 전 부모로부터 지지적인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낮은 경우 각각 높게 나타났다. 학교 적응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입소 전 부모로부터 지지적인 양육을 경험한 경우,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높은 경우 각각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중 우울 성향은 입소 원인과 자아정체감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었으며 자아정체감의 설명력은 입소 원인에 대한 설명력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학교 적응은 학년과 자아정체감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었으나, 설명력에서는 두 변인간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으로 대표되는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학년, 입소 전 부모와의 관계, 시설의 심리적 환경, 자아정체감 측면에서 관리되고 지도될 때 점증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그들의 우울 성향을 극복하고 학교 적응을 높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간주되므로 이의 육성 방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내적인 통제 성향 및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시설 아동의 학교 적응

유 안 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권 기 남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민 하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박사후 과정)

본 연구에서는 시설 아동의 학교 적응이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내적인 통제 성향 및,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내적인 통제 성향, 학교 적응은 시설 아동의 성별, 입소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내적인 통제 성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내적인 통제 성향은 학교 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했으며, 연구대상은 서울시 아동복지 시설 연합회 소속의 서울 소재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119(남아 58명/여아 61명, 5학년 34명/6학년 85명)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 척도, 내외 통제성향 척도,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이용했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의 t검증,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설 아동의 내적인 통제 성향,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 적응은 성별과 입소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시설 아동의 내적인 통제 성향은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즉,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는 내적인 통제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보임으로써, 보육사로부터 지지적인 반응을 많이 지각할수록 시설 아동의 내적인 통제성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1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 적응에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함께 내적인 통제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2단계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 적응과 더 이상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내적인 통제 성향을 통제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전에 존재하던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 적응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사라져,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는 더 이상 학교 적응력의 유의한 설명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이는 학교 적응에 대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가 내적인 통제 성향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설 아동의 학교 적응은 시설 아동의 내적인 통제 성향 육성이나 보육사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노력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한편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가 시설 아동의 내적인 통제 성향을 통해 학교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시설 아동의 내적인 통제 성향 강화에 초점을 둔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행동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

김 현 지 (신라대학교 강사)

이 기 숙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학과 교수)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의 경향과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중년기 남성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중년기 남성이 가정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중년기 남성과 사회관계망, 심리적 복지감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의 성격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복지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관계망의 하위영역으로 접촉 빈도, 상호작용 내용을 설정하고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영역으로 심리상태, 가정생활만족도, 일관계만족도로 정하여, 이 두 가지 척도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40-59세의 직업과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들로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314부였다. 표집된 자료는 문항분석, 빈도, 백분율, 일원분산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의 범위는 처가 친척보다는 친가 친척과 더 넓은 범위의 관계를 가지고, 접촉 빈도에 있어서는 일차적 관계망보다 이차적 관계망에서 더 잦은 빈도를 보였다.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 상호작용에서는 친가·처가 친척,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했으며, 다른 이차적 집단과는 그다지 활발한 활동은 보이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차적 관계망의 접촉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차적 관계망이나 접촉 빈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은 가정생활만족도나 일관계만족도에 비해 개인의 심리상태에 있어 낮은 복지감의 수준을 보였고, 일관계만족도의 하위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직업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의 각 하위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서 이차적 관계망의 접촉 범위가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남성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 내용은 친가와 처가 친척의 일손적·친교적 기능, 친구와 직장 동료의 물질적·친교적 기능, 이웃의 일손적 기능, 자발적 단체 성원의 친교적 기능이었다.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 내용은 친가와 처가, 이웃의 물질적·친교적 기능, 친구와 직장 동료의 일손적·물질적·친교적 기능, 자발적 단체 성원의 친교적 기능이었다. 일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 내용은 친가와 처가, 친구와 이웃, 직장 동료의 물질적·친교적 기능이고 단체 성원의 일손적·물질적 기능이었다.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이 경 님*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초보적인 자기통제능력이 학령전기동안 발달되어 아동·청년기나 성인기의 지적 성취나 바람직한 사회적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기통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5,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개인적 변인으로 연령, 성 및 사려성과 자아개념을 선정하고 가족환경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과 아동의 자기통제간의 인과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 중류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선정된 만 5세와 6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86쌍 및 이들 아동의 담임교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교사가 아동의 자기통제를 측정하는 TSCRS(Teacher Self-Control Rating Scale), 아동용으로는 MFFT(Matching Familiar Figure Test)와 자아개념검사, 어머니용으로는 양육행동척도이다. 아동용은 각 아동에게 개별검사가 되었으며, 어머니용과 교사용은 설문지를 통해 질문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각 검사도구와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통제는 아동의 사려성과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덜 통제적일수록 높았으며 이들 변인들은 자기통제를 20% 설명하였다. 둘째, 아동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총 인과 효과는 사려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동의 사려성은 자기통제를 높여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아동의 사회적 자아개념,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성, 연령의 순으로 자기통제에 대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려성, 사회적 자아개념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직접효과만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자기통제에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려성과 사회적 자아개념을 증진시켜 자기통제를 높여주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아동의 성은 자기통제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는데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아동의 사려성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자기통제에 간접효과만 나타났으며 직접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박 주 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박사과정)

이 은 해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취학 전기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와 교사 면접 결과를 기초로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관련된 25개 문항을 작성하였고, 147명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교사의 의견과 통계적 분석 결과를 기초로 15개 문항을 선택하여 예비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를 위해 서울시에 있는 네 개 유치원과 한 개 어린이집의 16개 학급을 임의 선정 후 담당 교사에게 각 학급 아동에 대한 평정을 의뢰하였으며, 이 중 만 5-6세 아동 365명에 대한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전체 15개 문항에 대해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5점 척도에서 평균이 3.1-3.6의 범위로 천정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88-1.08의 범위로 나타나 반응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된 문항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총점 분포에 따라 전체를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고 문항별 반응을 비교하여 Chi-square 값과 Cramer의 V 값을 산출한 결과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척도의 문항들이 유의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주성분 분석으로 사각회전 방식을 사용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비조사 자료의 요인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요인구조가 확인되었다. 이 세 요인은 각각 또래 관계에서의 '사교성(요인 I)', '친사회성(요인 II)', 그리고 '주도성(요인 III)'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모두 5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약 75%를 설명해주었다. 또한 본 척도와 또래가 평정한 또래 수용도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척도 및 세 하위 요인과 또래 수용도간의 상관은 .25-.43으로 모두 유의($p < .001$)하였다.

셋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는데 전체 척도에 대한 α 계수는 .93이었으며, 세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사교성이 .93, 친사회성이 .88, 주도성이 .90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 본 척도의 신뢰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기초해보면, 본 척도는 연구용 도구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절하므로 우리나라 취학 전기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한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교사들의 객관적 관찰을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과 교육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척도는 기존의 관련 도구에 비해 문항 수는 적은 반면 신뢰도와 타당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사는 대개 여러 아동을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문항 수가 많은 경우 평가에 대한 부담이 자료의 신뢰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척도는 자료수집의 경제성과 신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 부적응

이 은 아* (전북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정 혜 정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조교수)

본 연구는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 부적응의 차이 또는 관계와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청소년 부적응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 부적응은 심리적 부적응(불안/우울)과 행동적 부적응(비행)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정환경 변인은 가정의 일반적 특성(부모의 연령과 교육 수준 및 직업,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주관적 생활수준)과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 특성(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총 577명으로 남학생 290명, 여학생 287명이었으며,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win을 사용하여 연구 문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 및 직업, 가정의 월평균 소득, 생활수준에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및 행동적 부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 특성과 청소년의 심리적 및 행동적 부적응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과 행동적 부적응은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성적, 어머니의 직업유무로 나타났고,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성적, 성별, 생활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성적이었다. 행동적 부적응인 전체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성별, 성적,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학년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 변인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은 가정환경 변인과 큰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부적응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향상과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부모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강 현 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

김 정 옥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학과 교수)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를 통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건강한 부모-자녀관계구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의 예방 및 치료에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대구시의 남·여 실업계 고등학생 3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조사와 SPSS WIN 8.0 Program을 이용한 빈도분석, 요인분석,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 중회귀분석을 사용, 본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 척도로 사용된 것은 Satir의 4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평가형, 혼란형, 비난형, 회유형)이며 문제행동의 항목은 성인모방행위, 폭력 및 도덕이탈행위, 물질행위, 성향락행위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중 청소년자녀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부모의 비난형 의사소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인신공격적이며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는데 빈번히 사용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함께하며 자기만의 영역이 강하게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의 올바른 정신건강형성에도 부적절한 해가 될뿐 아니라 자기가치의 하락과 존중감, 자신감 결여로 인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에도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문제로까지 연결되는 문제행동의 발생율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어 아버지와와의 관계형성이 원만하지 못할 때 자녀는 문제행동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청소년기 자녀를 좀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정해주고 또한 그들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스스로 느끼게 될 때 청소년 문제행동은 다소 감소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어머니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차원을 넘어서서 아버지도 자녀양육과 관계맺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자녀와의 효율적 의사소통 기법 습득이나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학습된 교육에의 능동적 참여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신가족의 복지욕구 분석을 위한 사례 연구

김진희 · 박정윤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인간생활환경학과 강사)

한국사회는 1960년 이후 정치·경제·문화·종교·교육 등 다방면으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와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다각적 변화는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족은 소규모화 되고 핵가족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비전통적인 가구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단독가구의 증가와 대가족 가구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독신가족은 1985년에 비해 54.6%가 증가해서 95년 1인가구의 비율은 12.7%로 8가구중 한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로 불과 5년 동안 급격히 늘었다.

본 연구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독신가족의 복지욕구를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해 봄으로써 가족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가족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 처한 가족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독신가족으로 혼인상태에 따라 이혼 독신, 노인 독신, 미혼 독신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5사례씩 총 15 사례로 구성하였고,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한 면접을 통해 진행되었다. 면접은 각 사례별로 2~4회 실시되었으며 독신가족의 복지욕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호 및 양육에 관한 복지욕구

노후 대책, 가정봉사원 제도, 가정관리 대행

2. 차별문제에 관한 복지욕구

이혼에 대한 가족, 주변인들의 고정관념, 독신에 대한 고정관념,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차별, 독신자를 위한 자조 집단, 이웃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3. 경제적 문제

의료시설 확충, 소득보장 수준 현실화, 주택급여 제도 도입 및 확대, 안정된 직업 알선의 문제(구직, 자본금, 저임금)

4. 심리·정서적 문제

이혼적응 프로그램의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조집단 결성 및 상담 기관의 필요성

이러한 독신가족의 복지 욕구를 볼 때 가족 유형에 따라 다양한 가정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독신가족은 앞으로도 증가될 전망이므로 이들이 지닌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정복지 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고, 독신가족을 위한 가정생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독신가족이 지닌 복지 욕구를 면접조사를 통하여 밝혀냈으므로 그들의 생활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나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신가족의 복지 욕구에 관한 양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비행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환경 실태조사

이 미 숙*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고 성 혜 (가톨릭대학교 강사)

본 연구는 현재 소년원에 수용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족 및 또래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비행청소년을 예방·선도하며 이들 가족을 위해 효율적인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6개 소년원을 선정하고, 2000년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 부실기재를 제외한 총 575명의 비행청소년을 최종 분석하였다. 575명 중 남자는 484명(84.2%), 여자는 91명(15.8%)이다. 자료분석방법은 빈도분포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피어슨 상관분석, 집단간 차이에 대한 χ^2 검증, t검증, one-way ANOVA와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1) 비행청소년들은 부모의 사망 이외에도 이혼, 별거 내지 가출 때문에 친부모가족보다는 계부모가족 또는 편부모가족의 비율이 훨씬 많다. 친부·계모가족과 편부가족은 부모의 이혼이 주 원인인 반면, 계부·친모가족과 편모가족, 그리고 부모 모두 안 계신 경우는 배우자 사망이 주 원인이다. 또한, 부모의 별거와 가출은 편부가족과 친부·계모가족에서 많다. 전체적으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층 이하에 속하며, 특히, 편부모가족과 부모 모두 없는 청소년들은 가정경제가 매우 어렵고 열악한 상태에 있다. 2) 전체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은 그들 부모의 부부관계를 약간 긍정적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편부모가족의 자녀는 과거 그들 부모의 부부관계를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때,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가 강압적 태도를 보일 경우, 부모는 상호 폭력과 폭언을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3) 비행청소년들은 그들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를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계부모가족의 자녀는 그들의 계부 내지 계모와 상대적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다. 4) 비행청소년들은 대체로 친구가 많은 편이며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많다. 그렇지만 성실한 친구보다는 노는 친구가 훨씬 많다. 특히, 이들은 친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지 못하는 등 또래에 대한 동조성이 높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제언하면, 1) 친부모가족을 포함하여 현재의 계부모가족 내지 편부모가족들이 겪고 있는 부부간 갈등과 스트레스, 가족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부모가족의 부모자녀관계를 위해 친밀감 향상 및 재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이들 가족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 2) 편부모가족과 부모 모두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비행청소년들이 건전한 또래관계를 재형성하고, 이성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황 승 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학과 석사)

김 정 옥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은퇴연령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우리나라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정도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초기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하여 spss program의 방법으로 연구를 했다.

용어정의

본 논문에서는 초기노인을 퇴직연령에 초점을 맞추어 55-65세를 초기노인으로 정의하며, 노후관련태도는 초기노인들이 그들의 노후생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적 태도라고 정의하며, 노후준비는 초기노인들이 앞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에서 직면할 문제에 대한 준비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여가준비로 다루고자 한다.

결혼한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에서는 “원하지 않는다”가 43.1%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졸이상의집단에서 원하지 않는비율이 높게 나타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단독가구와 여성과 고학력자의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희망하는 자녀와 부양형태로는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43.5%)”,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30.5%)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양책임의 소재에서는 “본인자신” 40.5%로 나타나 부양책임이 ‘가족부양’에서 ‘자기부양’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몸이 불편할 경우 의존하고 싶은곳으로 “사회시설을 이용(38.9%)”, “자녀에게 의지(31.3%)”, “생각해본적 없음(27.5%)”로 나타났고, 유료양로원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렇다(56.1%)”로 나타났으며, 유료양로원 거주에 대한 생각에서는 “들어가고 싶다”가 55.7%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노인의 실제 노후준비정도는 5점에 평균3.36으로 나타나 노후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며, 준비정도를 보면 신체적 준비(3.44), 정서적 준비(3.43), 경제적 준비(3.32), 여가준비(3.29)를 보이고 있고, 전체노후준비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 월평균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노후준비가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앞으로 노인독거가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노인들의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하고, 다양한 노인전용주책을 개발과 노인의 취업 및 여가활동,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관과 교육이 필요하다.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부모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및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천 회 영* (고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과 부교수)

옥 경 희 (광주대학교 사회학부 부교수)

김 미 해 (구미1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자기보호 아동이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 그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방과후 탁아 제 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감독은 학령기 아동의 행동발달에 연관된 중요 가족내적 과정이라는 증거가 선행연구들에서 발견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학령기 자기보호 아동의 사회적·인지적 발달 특성과 가정의 양육환경인 부모감독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가정과 같은 미시적 체계 내에서 자기 보호 아동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학년과 성, 자기보호 여부,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자녀 감독정도에 따라 또래관계와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개교에 재학하는 3학년과 6학년 아동 429명이었다. 선행연구들에 근거한 자기보호 아동의 정의, 즉 '일일 3시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방과후 성인의 감독 없이 혼자 있는 아동'이라는 정의에 따라 방과후의 생활을 질문하였으며, 또래관계는 RCP(천회영, 1999)에 의해,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은 Harter(1985)의 척도에, 부모의 감독정도는 Crouter 등(1990)의 연구에 기초한 질문지로서 조사되었다. 자료는 다변량분석 및 단변량분석으로 통계처리 되었다.

연구의 결과, 자기보호 아동의 비율은 23.8%로 나타났다. 먼저 또래관계의 학년, 성, 자기보호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 독립변인의 3차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가 단변량분석을 통해 남자는 3학년에서는 자기보호 아동의 '공격-분열성'이 비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높지만 6학년에서는 낮아지며, 반면 여자는 그와는 반대 경향을 보였다. 남아와 여아에서의 이 같은 결과는 '수줍음-고립성'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래관계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정도의 영향을 살펴본 바, '수줍음-고립성' 차원에서 부모 감독정도가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나, 감독정도가 높을수록 수줍음-고립성이 낮다고 볼 수 있었다.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은 학년과 부모의 사회적 지위 변인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자기보호와 부모의 자녀감독은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인지적 능력과 같은 인지적 측면보다는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성을 갖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박 경 란*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이 영 숙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연령으로 분리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경향은 서로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상호작용 하는 데에 장벽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특히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퍼져있는 문제로서 연령차별의 추세로까지 되어가고 있다. 즉 노인들과 젊은이들은 구조적 또는 공간적 장벽 때문에 귀중한 사회화의 경험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대면적인 상호작용의 결여로 인해서 연령에 대한 상투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본 연구는 연령간의 분리가 노인이 당면하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노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져오는 고정관념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노인의 특성 및 특성의 범주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2000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첫째, 노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연상되는 단어를 대학생 40명에게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둘째, 조사된 단어를 22명의 남녀 대학생에게 동일 노인의 특성을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를 위계적 군집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이 서술한 전형적인 노인의 특성은 총 89개로 나타났다. 서술된 89개의 특성은 성격, 신체, 태도, 역할, 그리고 인지적인 면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특성 중 특히 서술 빈도가 높았던 부정적인 특성은 '융통성이 없는' '불안한' '무질서한' '소극적인' '보수적인' '희생적인' '잘 빠지는' '무기력한' 등이었고, 긍정적인 특성은 '포용력 있는' '자애로운' '지혜로운' '여유 있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편안한' 등이었다. 한편 이기적인-희생적, 무식한-박식한, 활기찬-무기력한, 포용력 있는-융통성 없는, 심술스러운-자애로운 등과 같이 상반된 특성들도 함께 포함되었다. 둘째, 노인 특성의 군집화 결과 긍정적 특성 군집(28개)과 부정적 특성 군집(61개)으로 나뉘어졌다. 이상의 두 군집 내에 10개의 중간 수준의 군집 즉 3개의 긍정적 특성 군집과 7개의 부정적 특성 군집이 산출되었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 특성 고정관념 3집단은 '전통적 (여)가장' '생을 통합하는' '조부모 상'으로 명명되었으며, 부정적 특성 고정관념 7집단은 '생활감각이 부족한' '자기중심적인' '삶에 지친' '은둔적인' '비관적인' '목표가 없는' '위축된'으로 명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노인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기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의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중년, 노년층을 포함한 다른 연령층의 고정관념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델파이조사 ■ 이용한 결혼준비진단에 관한 기초 연구

김 혜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박 희 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교)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상태를 진단하는 도구개발에 필요한 결혼준비진단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결혼준비평가 영역을 밝히는 데 있다. 그 중에서 결혼준비진단 개념은 구체적으로 결혼준비 및 결혼이 준비된 상태에 대한 정의 그리고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필요한 조치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총 2 라운드(2000. 4. 27.~2000. 8. 15.)에 걸쳐 델파이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준비란 결혼의례준비를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을 제외한 결혼생활전반의 적응을 위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적·법적·성적인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준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둘째, 결혼이 준비된 상태란 우선 개인적 측면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성숙이 바탕이 되어 부모로부터 심리적·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커플간 관계에서 서로의 애정도가 높고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하고 수용하며 의사소통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며 지속적으로 관계가 성장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결혼생활측면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와 정보를 소유하면서 서로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며 양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양가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적용하려는 의지를 갖추면서 두 사람이 결혼 후 재정관리·가사분담·자녀출산 및 양육·성적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를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결혼준비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하되, 결혼이 준비된 정도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심각하게 결혼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영역이 개인적 측면에 해당한 경우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스스로 결혼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상태를 수용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결혼 준비 교육·상담 혹은 결혼의 연기나 재고 등이 가능하다.

넷째, 결혼준비도 평가 영역은 결혼이 준비된 상태의 정의에 따라 크게 개인적 측면의 준비, 관계적 측면의 준비, 결혼생활 측면의 준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측면의 준비는 성숙, 부모로부터의 독립, 건강이라는 하위 영역이 있다. 관계적 측면의 준비는 그 하위 영역으로서 애정도, 상대방에 대한 파악 및 이해, 유사성, 양립성, 보완성, 의사소통능력, 자율성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결혼생활측면의 준비는 성, 결혼관, 결혼생활정보, 역할분담, 자녀출산과 양육, 재정관리, 양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개인적 측면의 준비 영역은 상대적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결혼준비진단모델에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가중치를 두기로 한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감 연구

김 명 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 정 우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계 선 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박 미 석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송 말 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후 연구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밝혀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기는 이전의 시기와 달리 사회·심리적 환경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해체와 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방임, 입시위주의 교육방식,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퇴폐적인 과소비문화,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창의적인 활동공간의 부재 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사회·심리적 환경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청소년들을 위기상황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환경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작용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심리적 복지감을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두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으로 가장 대표성 있다고 간주되는 집단들을 할당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25부가 최종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생태학적 접근에 의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청소년개인환경(성별, 종교, 용돈만족도, 소비성향, 시간지향성, 문제행동경험정도), 가족환경(가족유형, 부·모와의 만족도, 응집력, 적응력), 학교환경(계열, 학급유형,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만족도, 이성친구유무, 친구친밀도), 지역사회환경(거주지역, 여가시설만족도, 폭력경험유무, 유해시설이용정도)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환경변인중 성별, 용돈만족도, 소비성향, 시간지향성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환경변인에서는 가족유형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교환경변인 모두와 유해시설이용정도를 제외한 지역사회환경변인들에 의해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각 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환경은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감을 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환경은 15%, 학교환경은 6%, 지역사회환경은 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